

광주 서양음악 예술상 제정되나... '장신덕 음악상' 추진

문학상 3개·미술상 2개·국악상 있는데 '서양음악' 30년 이상 공석 제정 추진위, 장신덕 추모음악회·세미나·시민 서명운동 등 예정

임방울 국악상, 김현승 문학상, 허백련 미술상. 이름만 들어도 알려진 여타 예술분야의 상훈에 비해 그동안 광주시에 부재했던 '서양음악부문' 문화예술상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번 모임이 실제로 상의 제정까지 이어질지 광주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 광주시립합창단이 동시에 창단하자 두 단체의 초대 상임지휘자에 올랐고 1977년까지 이끌었다. 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1950-1980년 광주전남 음악계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생전 음악이론 연구를 통해 제자 육성에 힘썼으며 1962년 조선대 문리과대학 음악과에서 강사로 부임했고, 2007년 LA에서 타계했다.

고(故) 장신덕 교수



- 1928년 신의주 출생
- 1953년 광주사범학교 교사 부임
- 1969년 광주시민교향악단 창단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 지부장 역임
-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 1962년 조선대 음악과 교수
- 2007년 LA서 타계

장신덕 교수의 제자인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는 중학교 2학년 당시 장 교수를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리며 '끓인없는 음악 공부로 음악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라 회상(2022년 10월 18일자 광주일보 17면)했다. 김 교수의 기억 속 장 교수는 구하기 힘들었던 음악 도서를 매일 구매해 정독할 정도로 음악적 호기심이 깊었고 발전을 추구했으며 도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장신덕 음악상' 제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광주연합 제공>

제9-12대까지 역대회장(4인), 광주시향 및 음악중사자 및 초·중등 교원, 교장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장인 장신덕 후원회 회장(직무대행)이 맡았다. 이에 앞서 광주연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상 제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장신덕, 신동민, 임흥기가 추천됐으며 지난 22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후보자로 장신덕을 선정한 것이다.

'다시 만난 전일' ... 다시 문화·예술로 재충전

전일빌딩245 문화체험 '아트 오아시스'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 무성영화 '일주일' 상영·버스킹·북토크·미디어 전시·아트놀이터 등

플레이 워드 무비, 싱어 송 라이트, 미디어 전시, 인문학 콘서트, 융복합 콘텐츠 강연 등... 지난 여름 극한 기후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로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북토크와 강연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9일 진행되는 '인문학 토크-책 읽어주는 여자·남자'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SF 작가 김초엽을 초대해 에세이 '책과 우연들'을 함께 읽으며 융합 강연 프로그램 '전일245 클래스'에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126과 함께 가상현실(VR) e스포츠 파티를 진행한다.



인문학 콘서트 '책 읽어주는 여자 & 남자' (왼쪽)와 지난 행사 때 진행된 미디어 전시 '미디어의 밤'.



전남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공모 시작

18~27일... 선정작 11월 발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2023 하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오는 시작한다. 이번 소장작품 구입 공모는 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고 미술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매년 2회(상·하반기) 공모 절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수집해 오고 있으며, 수집된 작품은 전시, 교육 등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 작품, 전남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 전남의 역사·지리·자연·문화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 등을 수집한다. 접수된 작품(우편 접수만 가능)은 작품수집 추진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 작품은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9월호

디자인...수목... '비엔날레' 만나



비엔날레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광주에서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전남에서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문화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9월호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디자인을 만나다'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주먹대끼에서 스마트 폰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이라는 펜으로 일상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비엔날레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광주에서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전남에서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문화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꽃과 멋 함께, 남도 유럽' 여정은 '빙그레 웃는 섬' 완도로 떠난다.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를 자부하는 완도군은 청정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웰니스관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지도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이어 '국립 난도완도수목원'과 '국립 해양수산물박물관'도 들어선다. 청정바다의 보물 창고와 각종 해조류도 만날 수 있는 완도로 가을 여행을 나선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별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